

[로스쿨 합격기]

로스쿨 입시에 대한 조언

조 용 표

- 동대전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생



I. 들어가며

신학기의 흥분이 가라앉고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학업에 집중하게 될 4월입니다. 올해 로스쿨 신입생이 된 저도 졸업과 변호사 시험까지 3년간의 공부계획을 짜며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라는 하나의 관문을 갖 통과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된 입장에서 제가 지나온 관문을 통과하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스쿨은 실무법률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입니다. 전통적 변호사 자격 부여 제도였던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로스쿨을 통해서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법률가인 변호사, 판사, 검사 등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서는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여유를 가지고 만전을 기할 수 있으므로 특히 법조계에 관심이 있는 대학 신입생들은 로스쿨 진학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 사회학을 전공했으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돈을 목적하는 소시민적 삶이 아니라 무언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만 생각했을 뿐 뚜렷한 방향 설정 없이 대학시절을 보냈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해 공인권변호사나 법조공직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졸업 후 군복무를 하면서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로스쿨 입시에서 낙방하고 재수하여 로스쿨에 들어왔는데, 만약 대학시절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면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로스쿨 진학을 결정하실 때에는 입시에 대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입학 이후의 법학 공부와 졸업 이후 법조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학은 천재의 학문은 아니지만 끈기 있는 수재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적 능력 외에도 끈질기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숙고해보시기를 권합니다.

II. 로스쿨 입시의 구성요소

로스쿨 입학시험은 매년 말 각 로스쿨에 입학원서와 함께 LEET 성적, GPA(학부성적 평점평균), 공인영어점수,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를 제출하면 3~5배수의 1차 합격자가 선발되고, 그중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대학입시와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지며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제출받는 전형요소는 모든 로스쿨이 동일하지만 요소별 배점비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육철학이 다르고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LEET가 완전히 당락을 결정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GPA를 가장 크게 보는 학교도 있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중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LEET 대 자소서 비중이 4:1인 학교에서는 5배수에도 들지 못할 응시자가 1:4인 학교에서는 합격 안전권에 드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로스쿨의 입학 전형을 꼼꼼히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교, 자신과 같은 스타일의 인재를 원하는 학교를 찾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전형 정보는 학교별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매년 합동 입시설명회도 있으며, 사설 로스쿨 입시학원 홈페이지 등지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 커뮤니티로는 ‘서로 돕는 로스쿨 연합’(cafe.daum.net/snuleet)이 활성화된 편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GPA가 80점이 되지 않는 매우 낮은 점수이기 때문에 GPA로 응시제한을 두는 서울대, 충남대 로스쿨에는 아예 원서를 낼 자격이 없었습니다. 두 학교는 일정수준의 GPA가 되지 않는 지원자의 기본적인 수학능력 내지는 성실성을 의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대학졸업 외에 별다른 경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개서 비중이 높았던 성균관대 등은 피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글솜씨를 보려는 전형 요소가 아니라 특기할 만한 경력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 수단입니다. 변리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지원자, 자신의 분야에서 다년간 업무 경험을 쌓고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중시형 로스쿨에 지원하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형요소별로 제가 생각하는 공부 요령이나 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Ⅲ. LEET(법학적성시험)

로스쿨 입시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가장 낯선 것이 LEET입니다. LEET(법학적성시험,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는 로스쿨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으로, 대학입시에서의 수능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주관하여 매년 1회 여름에 실시되고,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표시한 성적표가 발급됩니다. 시험일정과 기출문제 정보는 LEET 공식 홈페이지(www.le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ET는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의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이해는 수능 언어영역과 유사하되 난이도가 학부 졸업자 수준에 맞춰진 시험입니다. 공부 방법은 일단 기출문제를 시간을 지키며 풀어서 자신의 지금 실력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매 시험마다 지문 소재 친숙도에 따른 유희리가 크기 때문에 기출 여러 회차를 모두 풀어 평균점을 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력을 파악했다면 다음은 모의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실력을 쌓으시면 됩니다. 언어이해는 문제 유형이 유사한 다른 시험이 있기 때문에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풍부한 편입니다. LEET기출과 모의문제만이 아니라, MEET·DEET(의치학교육 입문검사)기출과 모의문제, PSAT(공직적격성평가) 언어논리영역 문제까지 모두 학습자료입니다. 문제가 부족할리 없으므로 걱정 없이 실컷 풀면서 독해력을 단련하시면 됩니다. 언어이해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시간제한을 의식하면서 푸는 것이 좋습니다. 흐름이 끊기는 것이 싫다면 75분(마킹시간 5분 제외)이 되었을 때 어디까지 풀었는지 간단히 표시만 해 두고 끝까지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문 소재에 따라 유희리가 큰 것도 낯선 지문을 이해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숙한 지문이 많은 문제지에서는 30~33점 정도, 낯선 지문이 많은 문제지에서는 25~28점 정도를 받곤 했는데 35점 만점인 시험에서 5점의 편차는 정말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시험에서 내가 편히 읽을 수 있는 지문이 얼마나 나올지는 문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몇 년의 여유를 두고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학부 수준의 다양

한 교양서와 개론서를 읽으면서 다방면의 지문에 대처할 능력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언어이해는 문제유형이 친숙하기 때문에 독학도 부담이 없는 반면 추리논증은 LEET만의 독특한 과목이어서 현실적으로 독학이 어렵습니다. 구할 수 있는 문제도 부족하고, 과목 특성상 해설지의 논리 전개가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만의 공부로는 이를 시원하게 풀 수 없기 때문에 사설 입시학원 이용을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추리논증은 학원이 입장에서조차 낮은 시험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강사가 많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추리논증 이해 수준이 수험생보다 나은 게 없는 강사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사를 만나고 '오류 없는' 문제로 공부해야 추리논증 실력을 키울 수 있는데, 본인 실력이 상위권이 아니라면 강의의 질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고득점자나 로스쿨 재학생을 찾아 강사, 문제집 선택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학원에서 다른 수강생들과 어떤 강의를 좋고 나쁜지 의논하고 여러 강의를 바꿔 들으며 좋은 강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추리논증 공부를 하면서 명심해야 할 점은 문제의 해석에 있어서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5지선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정답은 있지만, 왜 그것이 답이 되고 다른 4개는 답이 아닌가에 대해 정말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실력 있는 강사라도 잘못 설명할 때가 있고, 심지어 시험 주관기관의 해석이 석연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내 생각이 맞고 문제가 틀렸다는 아집도 좋지 않고 반대로 해설지나 강사의 견해를 무조건 믿어서도 안 됩니다. 열린 태도로 강사의 견해, 해설지의 견해, 다른 수험생의 견해, 시간을 두었다가 다시 풀어본 자신의 견해 등등 다양한 견해를 비교·검토하면서 논리력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LEET 언어와 추리를 공부하면서 많은 수험생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지적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가 공부시간에 정비례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LEET는 처음 풀었던 점수가 끝까지 가며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도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 그런 생각에 공부를 게을리했던 첫 해에는 성적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원점수로 언어는 30점 전후, 추리는 25점 전후의 점수가 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독해력, 사고력, 논리력은 틀림없이 단련 가능한 능력입니다. 꾸준히 문제를 풀고 공부한 사람과 평계가 생길 때마다 공부에 손을 놓았던 사람의 실력이 같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LEET시험 6~7주 전부터 추리논증 점수가 30점 이상으로 오르더니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1년차에 24점이던 원점수가 30점으로, 84.9였던 백분위가 99.8로 올랐습니다. 모의문제를 풀면서 점수 추이는 분석하시되 성적이 바로 오르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노력한 만큼 내 실력은 쌓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논술은 개인적으로 LEET에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대입논술과 같은 유형인데, 저는 대입논술 기초가 없었던 데다 손이 느리고 문장을 오래 고민하는 버릇이 있어 시간 내로 분량을 채워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결국 시험날까지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술 대비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전공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학생의 글쓰기는 문과라 하더라도 지식요약기술형 작문을 많이 하지 논증주장형 작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LEET 논술은 별도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IV. GPA, 공인영어성적

배점비율이 로스쿨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LEET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GPA(평점평균, Grade Point Average)입니다.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로스쿨 지원자들의 학점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4.5점 만점에 4.0이 넘는 합격자가 많습니다. 평범한 학점도 로스쿨 입시에서는 낮은 학점이 되고 대학 졸업 후에는 높일 방법도 없기에 수험에 큰 부담이 됩니다. 자신의 학점이 낮다면 학점을 적게 보는 로스쿨에, 높은 편이라면 학점을 많이 보는 로스쿨에 지원하는 전략으로 합격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영어성적은 텡스를 요구하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24개 로스쿨이 토익, 토플, 텡스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고득점이 쉬운 토익을 수험생들이 선호합니다. 저도 945점의 토익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영어 때문에 손해보지는 않는 점수인 것 같습니다. 공부 방법은 당연히 영어 자체를 공부해서 영어실력을 높이는 것이 좋겠지만, 토익점수는 토익공부로 쉽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고생 때 영문법 이해하는 걸 포기했던 학생이라 처음 토익을 봤을 때 800점대 초반의 점수였는데, 쉬운 문법책으로 문법을 약간 이해한 뒤 토마토, 해커스 같은 종류의 토익문제집 한 권을 때니 지금 정도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좋은 책이 많겠지만 <Again! 뒤집어본 영문법(오성호, 2006)>이 개인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종로의 유명 토익학원도 다녀보았는데 학원비만 비싸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학원에 다닐 시간만큼만 내서 독학하면 토익점수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V.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 면접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는 연말 입학원서 제출시에 함께 제출하고 면접은 해를

넘겨 1월중에 시행됩니다. 보통 LEET에 집중하기 위해 자소서/학계서, 면접 준비는 LEET가 끝난 가을에 하는데, 유의할 점은 학교마다 자소서/학계서 양식이 다르고 면접방식도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기소개서에서 성장과정과 가치관에 중점을 두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경력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학교가 있으므로 자신이 지원하는 학교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 적절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허구적인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진솔하게 적는다고 로스쿨에서 관심도 없고 묻지도 않은 내용을 시시콜콜 적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개는 양식에 포함된 구체적인 질문으로 작성방향을 유도하므로 그것을 잘 살피면 됩니다. 제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감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수필을 써내려갔으나 경험 있는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고, 쓴 글을 지원자들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듣는 식으로 다듬었습니다.

제수를 하면서 4개 로스쿨의 면접시험을 경험했는데 방식은 네 학교가 모두 달랐습니다. 면접의 일부로 논술을 치게 하는 학교도 있었고 신상 질문을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문제풀이형 면접을 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개인면접을 하기도 하고 집단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면접시험에 대비해서 로스쿨 입시학원의 대비 강좌도 들었고 스피치 학원에 다녀보기도 했는데 거의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면접 방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면접을 잘 보기 위한 특별한 준비는 하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긴장되는 순간이 오자 학원에서 배운 모범적인 면접 태도는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면접에 대한 대비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하는 상황이나 호의적일지 알 수 없는 낯선 타인에게 자기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의 긴장감을 이겨낼 수 있다면 울렁증 없이 당당하게 면접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스쿨 면접에서 특별한 사전지식이 요구되는 질문은 던지지 않으므로, 떨지 않고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Ⅶ. 마치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스쿨 진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시다. 노력한 끝에 뜻하시는 일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